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심

[요 20: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평안**이 있을 지어다.

본문은 주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 즉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셨다고 증거한다. 본문은 부활하신 주께서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음을 증거하는 것 같다. 그의 부활체는 신비한 몸이었다. 물론 그의 몸은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지만(20절), 그의 부활체는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몸의 회생(回生)이 아니었다. 그 몸은 변화된 몸이었다. 그의 몸은 아마도 닫힌 문을 열지 않은 채 방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몸이었다. 그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것과 같은 변화된 몸이었다고 보인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셨다.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 제자들은 평안이 필요했다. 환난과 질병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평안이 필요하다. 평안은 매우 큰복이다. 히브리말에 ‘**평안**’이라는 말(shalom)은 우리말에 ‘안녕’처럼 포괄적인 뜻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경제적인 안정, 환경적인 평안을 다 포함하는 뜻이라고 본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는 못 자국이, 그의 옆구리에는 창 자국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상하신 바로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 물론 그의 몸은 영화롭게 변화되셨다. 그러나 그는 확실히 그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셨다. 그것은 며칠 전 그가 유월절 식사 후에 하신 말씀의 성취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니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리라

고 말씀하셨었다(요 16:17, 20, 22).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평안을 기원하신 후에 그가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것은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의 사명이었다. 전도는 사도들의 사명이었고 신약교회의 최대의 임무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병 고침이나 기적 행함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듯이, 교육 사업, 자선 사업, 구제 사업 등의 선한 일들은 교회의 사명이나 임무가 아니다. 그것들은 비록 선한 일이지만 교회의 사명이나 임무가 아니다. 주님의 사명이 영혼 구원의 전도이었듯이,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의 전도, 오직 거기에 있다. 실상, 영혼 구원의 전도는 이웃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이요 가장 큰 선행이다. 죄로 인해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지울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선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행 1:8). 성령을 받는 것은 사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물론 이 말씀은 예언적이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증거되어 있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 성취될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내려오셨다(행 2:4).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대로, 주께서 명하신 전도의 사명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과연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었다.

[23절]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 사역은 죄사함

의 사역이다. 죄가 개인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복음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 진리이다. 전도자들은 복음을 통해 죄사함을 선포하는 자들이다. 죄인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눅 24:47).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설교했다(행 2:38). 복음 전파는 죄사함의 선포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라고 표현하였다(엡 5:26). 교회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24-25절]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하자, 그는 내가 그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말했다. 도마는 이성적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 그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고 증거하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자들 중에 도마와 같은 교인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부활하신 주께서는 믿음 없는 도마를 위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말은 그 다음 주일 저녁을 가리켰다고 본다. 예수께서는 지난 주일 저녁에 나타나셨고(19절) 다시 주일 저녁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주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보인다. 주일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행 2:1). ‘주의 날’ 곧 주일에 사도 요한도 주의 재림 직전의 일

들, 즉 종말 사건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계 1:10). 주일은 신약시대에 구별되었다고 보인다. 제자들이 다시 함께 집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 날도 제자들은 집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께서는 믿음 없는 도마에게 말을 건네셨고 믿음의 기회를 주셨다. 주께서는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고 말씀하셨다. 주의 부활은 영이나 정신세계의 현상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세계의 사건이었다. 그는 몸으로 부활하셨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을 믿는다. 고린도전서 15:13-15,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도마 같은 합리주의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요 또한 증인들의 증거의 진실성을 믿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고 말씀하셨었다(마 22:29).

[28-29절] 도마가 [그에게(원문)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 이시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의심 많았던 도마는 그에게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 이시여”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주님과 하나님으로 고백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너는 나를 본 고로 믿었도다(KJV, NIV).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장차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도 믿을 것이다. 그들은 복된 자들이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이었고 기독교 확장의 역사

이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라고 증거했다(벧전 1:8).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믿고 있다. 우리는 그를 본 증인들의 증언들을 담고 있는 신약성경에 근거하여 그를 믿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다.

[30-31절]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과 부활을 증거한다. 복음서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과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한다. 또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서들을 주신 목적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특징을 증거한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상하신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의 손에는 못 자국이 있었고 그의 옆구리에는 창 자국이 있었다. 그 손의 못 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 자국은 만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신비한 몸이었다. 그는 문들이 닫힌 방안으로 들어오셨다. 그 몸은 아마 닫힌 문을 통과하여 들어올 수 있는 몸이었다.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천국에서 영생할 몸이라고 보인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믿음을 주셨다. 그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뵈었고 기뻐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은 우리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 함이었고 또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 함이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며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야 한다.

셋째로, 부활하신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죄사함의 사역을 말씀하셨다. 복음 전파는 죄사함과 영생을 전하는 사역이다. 우리는 죄사함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야 한다. 사람들을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내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다.

주일오후설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계 9:1-2]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半時)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侍衛)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요한계시록의 주요 구조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며, 그 셋의 연관은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로 이어지고 일곱째 나팔이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곱 인들 중 6장에 기록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환상은 전쟁, 기근, 죽음, 순교, 큰 지진 등 대환난 시대에 대한 묘사이었다. 거기에는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언급이 있었다(6:8). 이제 8장에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의 환상을 보이며, 그것은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강화된 재앙을 보인다.

마지막 시대의 재앙을 나팔로 표현한 것은 경고의 뜻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하라는 경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로 환난을 준비하라는 경고이다. 그러나 16장에 일곱째 나팔로 계시될 일곱 대접 환상은 하나님의 경고의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선포되는 것이라고 본다. 본문에 ‘반시(半時) 동안쯤의 고요함’은 다가올 환난과 재앙이 심히 크고 두려울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대환난 앞에서 믿음과 기도로 준비해야 하며 불신자는 이제라도 회개해야 한다.

[3-6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金)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香煙)[향의 연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가다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 . .

본절은 성도들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며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시행됨을 나타낸다.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 시행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성도들의 기도는 강력한 무기와 같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며 사탄과 악령들의 일들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게 한다. 우리는 고난의 세상 속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우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우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요한계시록 본문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 해석이 어려울 때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첫째 나팔의 재앙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것이다. 그 불로 인해 땅의 3분의 1과 나무들의 3분의 1과 모든 풀들이 태워질 것이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우박 재앙이나 혹은 전쟁으로 인한 땅의 황폐화로 보인다. 땅은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므로 땅과 나무들의 3분의 1과 모든 풀들이 불태워진다는 것은 실로 사람들의 생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땅과 나무들의 3분의 1만 타고 3분의 2가 남겨지는 것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둘째 나팔의 재앙은 불붙는 큰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다. 그 일로 인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될 것이다. 그것은 핵 폭탄 같은 것으로 인한 바다의 황폐화로 보인다. 바다와 배들은 특히 어부들과 상인들의 주요 생활 수단이므로 이 재앙으로 인한 타격도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이 재앙으로 바다와 바다 생물들과 배들의 3분의 1만 타격을 받는 것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다.

[9-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썩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썩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나팔의 재앙은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 일로 인해 강들과 물샘들의 3분의 1을 썩과 같이 쓰게 만들고 그 쓴 물을 마시는 자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나 혹은 화학무기 같은 것으로 인해 지구의 물들이 오염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은 사람에게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런데 물들의 3분의 1이 오염되었고 물들의 오염 때문에 세상에 큰 고통이 올 것이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나팔의 재앙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어두워지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에게는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

니다. 그때 지구는 태양 빛의 양이 줄어들므로 갑자기 추운 겨울을 맞을 것이다. 참으로 두려운 재앙이다.

위의 네 가지 재앙들은 천재지변이나 천체의 큰 변화나 혹은 핵무기나 화학무기 같은 것으로 인한 육지 오 바다의 변화로 보인다. 이것들은 복음서들의 예언과 일곱 인의 예언과도 일치한다. 예수께서는 그의 재림의 징조로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말씀하셨다(마 24:29). 또 일곱 인의 재앙은 전쟁과 기근과 큰 지진 등을 언급하였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주께서는 독수리들로 남은 세 재앙들이 사람들에게 화가 될 것을 선포하셨다. 앞에서 증거된 네 재앙들도 두렵지만, 남은 세 재앙들은 더욱 두려울 것이다. 특히 16장에 기록된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은 앞에 증거된 재앙들보다 더욱 두려운 재앙이 될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한다. 성도들의 찬송과 감사와 간구는 하나님 앞에 향의 연기같이 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들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이다. 거기에는 예언된 종말 사건들의 성취도 포함될 것이다. 대환난도, 악인들에 대한 공의의 보응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복음 21:36,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장차 일어날 땅과 바다와 강들을 황폐케 할 천재지변과 세계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예언하신 바이며 다 이루어질 것들이다. 주의 재림 직전에 천재지변들과 세계적 전쟁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만 순종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그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영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는 죽으면 즉시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죽어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담대히 원한다(고후 5:8).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울 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다.